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발행인: 김태근 베드로 주임신부 / 편집: 홍보분과
주소: 교육관•사제관: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전화: (302) 998-7609
Homepage: www.delawarekcc.org / Email: delawarekcc@gmail.com

2019 년 8 월 4 일(다해)

연중 제 18 주일

[입당송] 시편 70(69),2.6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 1 독서] 코헬 1,2; 2,21-23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 와 17(◎ 1)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 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 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 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 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 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 어 주소서. ◎

[제 2 독서] 콜로 3,1-5.9-11

[복음 환호송]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루카 12,13-21

[영성체송] 지혜 16,20 참조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 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	봉헌	성체	파견
37	220, 423	168, 155	2

미사전례							
날짜	**전례력**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예물봉헌**	**친교**
8 월 4 일	**연중 제 18 주일**	박 건	임성윤	송유준	송유준, 송민우, 송소영	김혜원, 김민주	송창훈 비오가정
8 월 11 일	**연중 제 19 주일**	김진숙	송정섭	공정임	송정섭, 공정임	홍성호, 송민우	송정섭 대건 안드레아 가정
8 월 15 일	**성모승천대축일**	**오전 11 시,오후 8 시 교육관**					
8 월 18 일	**연중 제 20 주일**	박상진	서행부	서영복	서행부, 서영복	윤우식, 한 수	서행부 요셉가정

해당일전주 미사후와 해당일 미사 30 분전에 교육있으니 꼭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러브 레터

작년 여름 9 월엔 교육관 앞마당에 성모동산 공사가 끝난뒤 모인 쓰레기들을 우리들이 미리 청소하지않아 신부님께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조용히 혼자서 정리하며 청소하시다가 과로로 허리를 다치는 불상사도 겪으셨습니다. 한발자국도 띠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요 평일 미사를 봉헌하시려고 나오셔서 경당안의 제대까지 힘겹게 걸어가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아품이었습니다. 어느날 김 안젤라 형님께서 공동체방에 위로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사제관에 눈이 또랑또랑한 우리 신부님이 맞는데 80 이 넘어 보이는 노 사제가 많이 아파하고 있네요" 나는 이 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사제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에 무어라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신부님께 좀 어떻시냐고 안부를 여쭙는 것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신부님의 고통은 오래갔습니다. 우리 전 신자들은 신부님께서 하루속히 쾌차하시도록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의 힘을 입으신 신부님께서는 서서히 노력 끝에 기력을 회복하시면서 건강을 되찾게 되어 얼마나 다행 이었는지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요안나 형님께서는 신부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신부님 ! 신부님의 몸은 신부님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오니 각별히 가끔씩은 무리하지 마시고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하시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신부님께서는 미소와 함께 "이제 다 나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며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미소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 우리는 모처럼 신부님의 환한 모습을 보면서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며 궂은일이 생기면 마다하지 말고 솔선수범 우리가 스스로 해야할 일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우리들을 여러가지 체험을 통해 믿음을 키워 주시려고 작년 가을 야외 미사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성경필사를할 기회를 주시면서 선물로 노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 이일은 신부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큰 은총의 선물 이었습니다. 평생에 한번 써보지 못할 성경필사를 체험하면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끼면서 필사하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는 뜻깊은 은총의 시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중에 잊지못할 추억의 한 부분이되었습니다.

7/11/2019 오늘은 우리 요셉회의 특별한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요셉회를 잘 이끌어주신 베드로 신부님과 요셉회 회원들이 더 좋은 추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한 참으로 설레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신부님을 위한 음식들을 정성것 만들어 오셨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웠지만 손에 정성것 만드신 음식을 한아름 안고 교육관 센터에 들어오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환한 아름다운 모습에서 요셉회 회원들은 성가정의 향기가 꽃처럼 피어나듯 사랑스럽습니다. 그사이에 공동체의 예쁜 여성분과 자매님들이 속속 들어오셔서 요셉회 아카데미 모임을 도와 주시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니 정말

하느님의 은총을 듬뿍 받으신 분들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냥 보기만해도 우리들은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베드로 신부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 아름다운 사랑의 봉사를 마다하지않고 열심 하신 자매님들의 고마움을 잊지않고 우리 시니어들도 열심히 보답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어느덧 미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오늘 봉헌되는 미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특별한 미사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질주하는듯 합니다. 하루가 가고 한달이 훌쩍 지나고 또 한달이 가버리면 우리들은 신부님을 오랬토록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시려옵니다. 강론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오늘 기념일인 성 베네딕토 성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공동체의 모든 신자들이 인내와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행동하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수 있고 이런 성숙된 공동체안에서 우리 성 스테파노 공동체도 노력해서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바라는 마음을 당부의 말씀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산부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을 얼마나 지극 정성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는지를 새삼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신부님의 마음을 헤아려보았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친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교 시간은 언제나 화기애애 하며 모두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락 시간을 맞이해 우리들은 신부님을 위한 특송을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 ~ 사랑해 ~ 신부님을 사랑해 ~” 가수 패트김의 노래를 가사를 바꾸어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며 신부님께 노래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영원히 ~ 영원히 ~ 변함없이 신부님을 사랑해 ~” 우리들은 3 절까지 열심히 열창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안나 형님께서 슬퍼하시며 눈물을 닦고 계시네요. 나도 북받쳐 눈물이 날것만 같았습니다. 모두가 신부님의 노고에 감사하며 기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추억을 만들어 간직하시려고 열심히 동영상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유모로 시니어분들의 마음을 달래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님을 떠나 보내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아름다운 은총의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아름다운 김태근 베드로 신부님을 보내주셔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신 사랑이신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신부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언제나 주님의은총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들은 신부님의 향기가 묻어있는 성모가든에서 크고 작은 예쁜 항아리를 보면서 신부님을 그리워하게 되겠지요 .
신부님 사랑합니다 ! 부디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글 서영복 데레사, 7/11/ 2019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9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가족 전례 및 친교 봉사:** 오늘 8월4일 가족 전례 및 친교 순번은 송창훈 비오가정입니다.
가족 친교 봉사 준비 대행 서비스(도넛 또는 빵, 다과구입) 가능하니 총 구역장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3-3608

■ **레지오:** 순교자들의 모후 pr. 레지오팀이 15년 4개월, 800차 주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레지오 팀에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합니다.

■ **청소년 분과 :** 8월부터 주일미사전 청소년 친구들 복음서 읽기와 기도문 공부가 시작 됩니다. 주일 아침 10시 25분까지 St. Paul.성당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가 **8월 15일 오전 11시와 저녁 8시에** 교육관 성당에서 있습니다.

■ **평일 미사:** 7월과 8월에는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사목회 모임: 8월 11일** 주일미사후 사목회있습니다. 회의후 정지상 사목회장님댁에서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사목회원과 가족 모임있습니다.

■ **St. Paul's 성당 청소:** 8/11(주일) 1구역, 8/25(주일) 2구역, 9/15(주일) 3구역, 9/29(주일) 4구역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김나영 쥴리안나, 김일월 말가리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1차헌금: $486, 2차헌금: $197, 감사헌금 $100 (무명)

교무금: 민병묵 5, 6월, 이행복 5~8월, 임지용 1~8월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장 이상헌 요한 ☎ (302) 893-4569, 부분과장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893-8002 님께 **수요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 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평일미사	**4, 5, 6, 9, 10, 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교육관 성당		
성시간	평일 미사 있는달 첫째주 수요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성서 100 주간 모임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성당		
레지오 마리애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4, 5, 6, 9, 10, 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후 교육관 성당		
Youth Group 모임	주일미사후 St. Paul's 사제관 2 층		
고해성사	미사 전	**봉성체**	신청시
유아세례 및 축성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 이삼경 크리스티나**	
☎(302) 998-7609	☎(215) 313-8854	☎(302)893-4569, ☎(302) 893-8002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